



유소년 시절 기억으로 탐구한 한국남자의 권위주의 전인권의 《남자의 탄생》

〈출판저널〉의 연중기획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6월호 선정작을 발표한다. 〈출판저널〉 기자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5월 13일 1차 추천도서 10권을 4권으로 압축, 최종 선정작업을 벌였다. 지난 5월호까지는 모두 15권 내외로 후보도서를 선정한 후 다시 5권 내외의 최종후보작으로 압축했으나 이번 6월호부터는 후보도서 수를 10권으로 좁히는 등 선정방식에 일부 변화를 주었음을 밝힌다. 이는 후보도서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보다 집중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10권의 저작 중 최종독회에서 언급된 책은 전인권의 《남자의 탄생》, 황선미의 《과수원을 점령하라》, 유동영·허경민의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여자 이야기》, 강준만의 《한국 현대사 산책》 등 4종이었다.

《과수원을 점령하라》는 우리 동화계에 기여한 작가적 공로와 함께 긴밀한 옴니버스식 전개로 통해 자연과 사람 간의 소통을 어린이 눈높이에 잘 맞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는 황선미 씨가 개척해 가고 있는 동화작법의 신선한 발상과 이야기성 회복에 큰 박수를 보낸다.

《한국 현대사 산책》은 불행한 현대사 1980년대를 4권에 집약한 역저이다. 특히 그동안의 글쓰기 방식을 일부 바꿔 보다 성실한 자료 채집과 인용을 통해 1980년대의 사회 전 분야를 조명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강준만 씨의 이 저작은 21세기의 물결 이전에 지울 수 없는 1980년대가 자리하고 있음을 환기하는 장치이다.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여자 이야기》는 흠으로 빛은 자서전이라는 시리즈 명칭에 걸맞게 이 땅의 어머니들이 살아온 신산한 삶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값지고 드문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기자들 모두의 시선을 잡은 책이다. 무지렁이 소리를 들을지언정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살아온 이들이 할머니가 되어 들려주는 딱딱한 이야기들은 분명 주목에 값한다.

《남자의 탄생》은 정치학자 전인권 씨가 자신의 유소년시절을 텍스트삼아 한국의 남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권위주의와 보수성을 해부한 책이다. 나로 출발하여 가족과 사회로 주제를 확산시키면서 한국사회의 모순과 미래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한편 재미와 깊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특별한 책이라는 데 기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출판저널〉 선정위원회는 위 4종의 후보작에 대한 토론을 벌여 전인권의 《남자의 탄생》을 〈출판저널〉 6월호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로 선정했다. 《남자의 탄생》은 판에 박힌 정치사회적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분방한 상상력과 어린시절의 기억을 합성해 일궈낸, 한국남자들에 대한 정밀 진단서라고 할 수 있다. 독자들의 일독을 권한다. **한민**